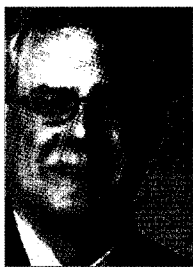


# 윤리의 역할 강화하기 혼란의 시기에



Ron Hamel, Ph.D.  
senior director, ethics, Catholic Health  
Association, St. Louis

2010년 총회의 주제 — 우리의 미래를 향한 전진: 혼란의 시기에 사목적 직무를 강화하기 — 는 가톨릭 보건의료에서 윤리의 역할을 숙고하고 그 존재와 기여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혼란의 시기에 사목적 직무를 강화하기”에 대해 고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안으로도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윤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혼란의 시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들 근처에는 가톨릭 보건의료의 정체성과 통합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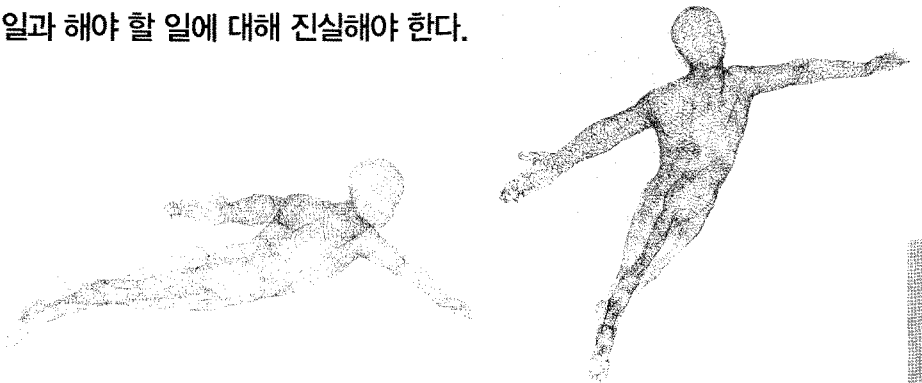
무엇보다, 혼란의 시기에, 가톨릭 보건의료는 그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이며 그것이 표방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진실해야 한다. 정체성과 통합성은 무엇을 강화해 나가든 간에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만일 사목적 직무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아마 그 순간부터 최소한 “가톨릭” 보건의료로서의 직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체로서의 가톨릭 보건의료와 개개 가톨릭 보건의료 기관들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진작시키고 지원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가톨릭 보건의료 윤리는... 기관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의사결정과 행동, 그 통합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중심 역할을 한다. 윤리는 정체성, 특성, 문화와 관련하여 기관이 무엇을 표방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자신이 표방하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명코 윤리는 가톨릭의 정체성이 온 기관에 스며들도록, 그리고 기관 전체가 그에 따라 통합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sup>1)</sup> 가톨릭 보건의료에서 윤리는 (일반적으로) 이중의 초점들 — 정체성과 통합성, 특성과 행동, 가톨릭 보건의료란 어떤 것이며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가톨릭 보건의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을 가진다. 전자가 양성 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분별, 의사결정 및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념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윤리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기관의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하고, 진작(振作)하고, 심지어 도전하도록 돕는 일과 바람직한 문화를 위한 지도자와 실무자들의 지속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윤리가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문화의 실체 — 가치, 신념, 실천, 정책 — 를 다루기 때문이다. 특히 혼란의 시기에 문화의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관의 문화와 직무가 복음의 가치와 신념을

1) Ron Hamel, "Health Care Ethics: Changes on the Way", Health Progress 89, no. 5(September-October 2008): 5.

무엇보다, 혼란의 시기에, 가톨릭 보건의료는 그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이며 그것이 표방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진실해야 한다.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과 광범한 미국 문화의 가치와 신념, 실천, 역동성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가? 도전이 빚발치는 시기에는 흔히 근본적인 문제들을 방치한 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눈앞에 닥친 위협에만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국에 이것은 비싼 대가를 치루고 만다.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과 도전에 맞서 싸우는 일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를 창조하도록 돕는 일이 윤리가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아니다. 도덕적 담론이 소통되는 공동체, 곧 윤리 문제를 인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곳, 윤리적 관심사를 대화로써 소통하는 곳, 나아가 윤리적 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도 엄연한 윤리의 몫이다. “윤리적 실천은 관심사와 의미를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비록 가톨릭 보건의료에서 윤리가 복잡한 임상 결정과 사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또한 가치들에 대한 의미심장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치 중심의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sup>2)</sup>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윤리적 담론은 또한 기관의 정체성에 더욱 잘 부응하도록 마음과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윤리적 담론에서 윤리가 기여하는 바는 단지 그 사안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윤리적 현안이 무엇인지 알도록 돕고, 「윤리적 종교적 지침」<sup>3)</sup>과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에 담긴 윤리적 원칙들을 알게 하고 이해시키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윤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더 넓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전망을 밝혀 준다. 윤리가 신학적인 전망에서 나올 때, 이 모든 것은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의 성경 그리고 교회의 신학적 전통의 맥락 안에서 검토된다.

2) Sr. Patricia Eck and John Wallenhorst, “The Emerging Role of Ethics: A Sponsorship View”, Health Progress 90, no. 2(March-April 2009): 36. 또한 Jack Glaser, “The community of Concern”, Health Progress 83, no. 2(March-April 2002): 17-20도 참조하라.

3) 미국 주교회의가 펴낸 「가톨릭 의료 활동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Ethical and Religious Directives for Catholic Health Care Service)을 말한다. 옮긴 이 주.

**윤리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일은  
어떤 결정과 실천이 기관의 정체성 요구와  
부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같은 행위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녕을 진작시키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

윤리의 주요 역할 중 두 번째는 바람직한 문화를 표출하고 나아가 강화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일은 세부적인 결정, 행동, 실천, 계획 또는 정책들의 윤리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잭 레이저(Jack Glas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윤리-자유지대(ethics-free zones)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업 영역에서 전략 계획과 사업 발전, 인적 자원, 의료 전달 등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이나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윤리적 영역에 몸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관 차원에서 그리고 임상 차원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결정들의 윤리적 영역은 흔히 잘 인식되지 않는다. 어느 한 특정 분야의 관심사, 개념, 사고 패턴 그리고 언어 등은 그것을 파묻고 감춘다. 윤리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일은 어떤 결정과 실천이 기관의 정체성 요구와 부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같은 행위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녕을 진작시키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윤리는 식별 과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와 임원진 및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가톨릭 보건의료의 정신뿐 아니라 기관의 이념과 핵심 가치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들은 또한 적절한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종교적 지침」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종교적 지침」)은 서비스 라인의 개통이나 중단, 다운사이징(downsizing)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릴 때, 새로운 동반자로서, 일련의 요인들을 확실하게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결정들은 사람들 뿐 아니라 기관의 정체성과 통합성에도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가톨릭 보건의료 기관에서 윤리의 역할과 기여도를 강화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최고 임원진, 특히 CEO에게 달려 있다. 만일 윤리가 조직의 상층부에서부터 소중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설 자리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은 항상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기관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이들 — 전문 윤리학자든, 이념을 담당하는 임원이든 또는 윤리 위원회든 간에 — 행정 관리자와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임상직의 존중과 신뢰를 얻는 일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역량과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그리고 기관의 문화와 활동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 필수적이다.

혼란의 시기에 사목적 직무를 강화하는 일은 우리 기관의 윤리를 강화하고 그것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좋은 기회이다. 활기차고 선명한(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로) 윤리의 존재는 생동감 넘치는 윤리 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만일 그것이 기관 전반에 깊이 융화된다면, 가톨릭적 정체성과 통합성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출처: Ron Hamel, “Strengthening the Role of Ethics in Turbulent Times”, Health Progress (May-June, 2010), pp. 60-61.  
번역: CMC 임상사목연구소